

盧照隣 생애에 대한 考察*

金官洙**

< 목 차 >

1. 서론
2. 盧照隣의 생애
 - (1) 盧照隣의 출생 연도
 - (2) 蜀에 들어간 횡수와 시기
 - (3) 秘書省 근무시기
 - (4) 盧照隣의 하옥시기
 - (5) 太白山, 東龍門山, 具茨山으로 옮긴 시기
 - (6) 盧照隣의 사망 연도
3. 결론

1. 서론

初唐四傑 가운데 盧照隣의 생애에 관해 學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소논문이 많이 나온 상태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의 주장이 각기 달라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다.

먼저 盧照隣의 생애에 관한 논쟁은 聞一多가 《唐詩大系》¹⁾에서 추측한 데서 시작한다. 이후 傅璇琮이 《盧照隣·楊炯集》²⁾의 부록으로 실은 盧照隣 年譜가 盧照隣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는 처음으로 나오는 연보라 개선의 여지

가 많았다. 이에 대해 任國緒가 새로운 견해를 내면서 盧照隣의 생애에 대한 논쟁은 불분명해진다. 다시 任國緒의 《盧照隣生平事跡新考》에 대해서 祝尙書가 《〈盧照隣生平事跡新考〉商兌》³⁾를 발표해 이를 반박하게 되고, 이에 대해 任國緒가 다시 《盧照隣生平事跡再考》의 논문을 내놓게 된다. 이외는 다르게 이운일은 《關於盧照隣生平的若幹問題》를 발표해 새로운 학설을 내놓았다. 다시 祝尙書는 새로 발견한 佚文 《翼令張懷器去思碑》을 바탕으로 《盧照隣集箋注》⁴⁾의 부록으로 盧照隣 年譜를 게재한다. 傅璇琮은 《唐五代文學編年史》⁵⁾에 祝尙書가 새로 발견한 佚文을 후세의 위탁이라고 논증하여 새로운 盧照隣의 年譜를 내놓는다. 마지막으로 葛曉音이 《關於盧照隣生平的若幹問題》⁶⁾라는 논문을 내며 다른 연구자와는 확연히 다른 설을 내놓았으나, 착오가 심하다. 이후 盧照隣의 생애에 관한 논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이를 종합해 보려는 학위 논문이 시도되었으나, 이마저도 제각각이어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문학 작품의 편년이 중요한 것은 일정 사건의 전후에 따라 문학작품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盧照隣의 시는 생년 고찰이 잘못됨으로 해서 잘못 이해된 작품이 많았다. 필자는 선후가 뒤바뀌어 있는 노조린의 작품들에 정당한 자리를 찾아주어 그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 하고자한다. 그러려면 먼저 정확한 생년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작자의 행적이 작품의 이해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는 앞으로의 논문전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2. 盧照隣의 생애

盧照隣의 생애에 관한 구체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기에 앞서 먼저 盧照

* 이 논문은 2008년 고려대학교 BK21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高麗大 中日語文學科 博士課程.

1) 《聞一多全集》(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82), 四冊, 164쪽.

2) 盧照隣, 楊炯 著, 徐明霞 編著, 《盧照隣集楊炯集》(北京: 中華書局出版, 1984).

3) 祝尙書, 《〈盧照隣生平事跡新考〉商兌》, 《四川師大學報》, 1988年, 1期.

4) 盧照隣 著, 祝尙書 校注, 《盧照隣集箋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5) 傅璇琮 主編, 《唐五代文學編年史》(沈陽: 遼海出版社, 1998).

6) 葛曉音, 《關於盧照隣生平的若幹問題》, 《文學遺產》, 1989年, 06期.

隣 생애에 대해서 이전의 연구자들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대조해 보기 좋도록 간략히 표로 만들어 보았다.

年號	傅璇琮	祝尙書	李雲逸	張志熱	駱祥發
貞觀	633 출생	632 출생	635 출생	634 출생	630 출생
永徽	652 典籤 제수	651 典籤 제수	654 典籤 제수	653 典籤 제수	650 典籤 제수
顯慶	660 秘書省 재직 서북으로 출塞	660 秘書省에서 근무	657 蜀에 出使 658 襄州로 移職	656 壽州로 移職 658 襄州로 移職	656 서북으로 출塞 659 兗州로 移職
龍朔	661 蜀에서 하옥 662 蜀에 出使	661 하옥 蜀에 出使		662 漠北에 從軍 663 蜀에 出使 하옥	661 新都尉 제수
麟德		665 秘書省 재직	664 兗州로 移職 665 新都尉 제수	665 新都尉 제수	
乾封	666 蜀에 出使 667 歸京	666 蜀에 出使			
總章	668 新都尉 제수 669 장안에 出使	669 新都尉 제수		669 蜀에서 하옥	668 하옥 669 장안에 出使
咸亨	671 歸京 673 秘書省 재직	671 歸京 673 洛陽으로 이거.	672 洛陽에 한거	672 太白山에서 와병	672 秘書省 재직
上元	674 太白山에 와병 父喪	674 洛陽에 閑居	675 父喪 太白山에 와병	674 東龍門山으로 이거	674 太白山에 와병 父喪
儀鳳		678 東龍門山으로 이거	678 洛陽으로 이거		677 東龍門山으로 이거
調露	680 東龍門山으로 이거	679 具茨山으로 이거	679 東龍門山으로 이거		
永隆				681 具茨山으로 이거 자살	
永淳	682 具茨山으로 이거 자살		682 具茨山으로 이거 자살		
垂拱		685 具茨山에			685 자살

	와병			
萬歲	695 자살			

※ 밑줄 그은 부분은 필자가 이전 연구자의 주장 중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이후 논문은 밑줄 그은 부분과 필자의 새로운 견해에 맞춰 논증이 진행될 것이다.

위의 여러 가지 설들에 비해 본고가 정한 노조린의 생애는 다음과 같다.

노조린은 貞觀 9년(635)에 幽州 範陽에서 태어나 십여 세에 曹憲과 王義方에게 나아가 수학한 후, 永徽 3년(652) 18세 즈음에 장안으로 와 來濟 등의 名流와 교류하며 문명을 쌓아 과거에 합격한다. 처음에 비서성에서 근무하다 永徽 5년(654) 20세에 壽州 자사로 있던 鄧王 李元裕의 典籤(문서 담당관리)으로 들어간다. 壽州 시절에 鄧王의 명을 받고 촉으로 파견 다녀온다. 다시 鄧王이 顯慶 3년(658)년에 양주자사로 발령 남에 따라 양주로 隨行 간다. 龍朔 2년(662) 28세 襄州 시절에 서북의 鐵勒九部 토벌군에 從軍하였다가, 장안으로 돌아와 군법에 회부되어 하옥 당한다. 龍朔 3년(663) 29세에 출옥 후 다시 연주자사로 있던 鄧王을 찾아 兗州로 가나, 麟德 2년(665) 31세에 鄧王이 죽자 다음 해인 乾封 元年(666)에 益州에 있는 新都縣의 縣尉로 좌천된다. 總章 元年(668) 34세에 다시 비서성으로 발령이 나고, 總章 2년(669) 35세에는 蜀으로 왕의 덕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비서성의 직원으로 파견된다. 蜀에서의 임무에 염증을 느낀 노조린은 도중에 관직을 포기하고 술과 자연을 벗 삼아 방랑하게 된다. 마침 촉으로 와 있던 王勃을 만나 같이 산수를 유람하다가 咸亨 2년(671)에 장강을 타고 三峽을 지나 장안으로 돌아와 그 해 말에 과거에 응시한다. 과거에 낙방한 후 노조린은 다시 가족이 있는 낙양으로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咸亨 3년(672) 38세에 다시 비서성에 나타나 秘書少監인 崔行功에게 관직을 부탁한다. 咸亨 4년(673) 39세에 光德坊⁷⁾에서 병들어 누워 孫思邈을 스승으로 모시고 치료를 받다가 上元 元年(674) 40세에 孫思邈을 따라 太白山으로 들어가 服食을 행한다. 이듬 해 上元 2년(675) 41세에 부친상을 당해 낙양에 있는 본가로 가서 服喪 하지만 병이 심해져 3-4년간 앓아눕는다. 4년 후인 調露 元年(679) 45세에 다시 東龍門山으로 옮겨 佛舍를 건축하고 참선을 배운다. 병이 더욱 심해져 한쪽 다리와

7) 장안성 안의 서쪽 구역 이름.

손이 오그라들어 못 쓰게 되자, 垂拱 元年(685) 51세 즈음에 집과 묘지를 미리 마련 해둔 具茨山으로 거처를 옮긴다. 십여 년을 요양하다 萬歲 元年(695)년 61세 이후에 <병에서 해방됨(釋疾文)>을 짓고 자살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노조린의 생애를 이와 같이 정한 근거를 들도록 하겠다.

(1) 盧照隣의 출생 연도

그가 언제 태어났다고 직접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없다. 자신 스스로도 나이를 말한 적이 없다. 다만 다음 몇 가지 단서가 있다.

盧照隣이 촉을 떠난 시기는 咸亨 2년(671) 37세 봄이다. 駱賓王이 盧照隣에게 준 <豔情代郭氏答盧照隣>⁸⁾시를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작자는 駱賓王이지만, 사실은 동거녀였던 郭씨 성의 여자의 말을 대필한 것이므로 盧照隣에 대한 신뢰할 만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盧照隣이 떠날 당시에 병에 대한 어떠한 증상도 나와 있지 않다. 아마도 동거녀가 모르는 병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으므로 적어도 咸亨 2년(671) 37세에 그는 아직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咸亨 3년(672) 38세에는 낙양에 있는 집에 다녀오고, 또한 이때 지어진 <雙槿樹賦序>에서 秘書省의 少監인 崔行功에게 관직을 부탁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병에 걸린 시기는 咸亨 4년(673) 여름이다. 다음의 <병든 배나무에 관한 노래 서문(賦病梨樹賦序)>를 보자.

癸酉(673)년에 나는 長安의 光德坊 관사에 병으로 누워 있었다. ……내 나이가 40에 가까울 즈음에 근심스러운 병에 걸렸다. ……나 혼자 병으로 이 도읍에 누워, 적막하니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 병으로 누운 지 백 일이요, 집안에 틀어박힌 지 석 달이 되어간다. 마당에는 나무가 여러 그루 없고, 단지 병든 배나무 한 그루가 있을 뿐이다.⁹⁾

8) 駱賓王 著, 陳熙晉 箋注, 《駱臨海集箋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141쪽.

<病梨樹賦>에서 그는 咸亨 4년(673)에 39세에 光德坊에 몸져 누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낙상말은 光德坊에 병들어 누워있을 때는 이미 석 달이나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병이 중하게 든 상태고, 실제로 병은 일 년 여 전에 걸렸다고 말한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여기서는 병의 잠복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盧照隣 자신이 느끼는 병의 시작이다. 만약에 이보다 먼저 감지했던 병의 시작이 있었다면 그는 그 시작된 시기부터 말하였을 것이다. 즉 盧照隣 자신이 말하고 있는 병의 시작은 咸亨 4년(673)에 長安의 光德坊에서 부터이다. 그리고 병이란 갑자기 중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예전처럼 병에 대한 대응이 적절할 수 없었던 시기라면 병은 수개월 내로 급속히 악화되어 기동이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내 나이 사십에 가까울 즈음에 근심스러운 병에 걸렸다”가 말하는 시기는 咸亨 4년(673)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가 ‘咸亨 4년(673)에 몸져누웠다’고 말하고 다시 ‘내 나이 사십 즈음에 병에 걸렸다’라고 한편의 문장 안에서 동시에 말한 것은 동일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편이 서로 다른 사건을 얘기한다고 주장하는 편보다 훨씬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가 병에 걸렸다고 주장한 673년이 그의 나이 38-39세 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출생은 貞觀 8-9년(634-5)이 된다.

또한 그보다 약 20년 늦은 시기의 張鷟은 《朝野僉載》에서 “약관의 나이에 鄧王府의 典籤에 임명되어 왕부의 모든 문서를 일임 받았다”¹¹⁾라고 하였으므로 만약 그가 언제 鄧王府에 들어갔는지를 밝힌다면 그의 출생연도를 알 수 있다.

먼저 盧照隣은 과거에 합격한 후 일단은 秘書省의 저작량으로 있다가 鄧王府의 눈에 들어 鄧王府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로는 처음에 그가 비서성에서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釋疾文·粵若>의 문장을 보자.

9)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22-25쪽, <賦病梨樹賦序>: 癸酉之歲, 余臥病於長安光德坊之官舍. ……余年垂強仕, 則有幽憂之疾. ……余獨病臥茲邑, 闕寂無人, 伏枕十旬, 閉門三月. 庭無衆木, 唯有病梨樹一株.

10) 駱祥發, 《初唐四傑研究》(北京: 東方出版社, 1993), 70쪽.

11) 《朝野僉載》 卷六: 盧照隣字昇之, 範陽人. 弱冠拜鄧王府典籤, 王府書記一以委之.

나는 어려서 이러한 커다란 은혜를 입어, 곧 《禮記》를 살펴보고 《詩經》을 들었으며, 식량을 싸들고 스승을 찾아 나서고, 치마를 건고 古代의 도를 찾아 다녔다. 南越에서 옛날의 篆자를 찾아내고, 東魯에서 실전된 경전을 얻었다. 뜻이 결여된 곳이 있으면 반드시 써넣었고, 간책에 문자가 없으면 모두 보충하였다. 공자처럼 陳나라를 거쳐 衛나라로 갔고, 만 리 길이 멀음을 마다하지 않았다. 밭에 굳은 살이 겹겹이 배겨도 천리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용을 베는 기술이 완성되고, 백조의 조각이 처음으로 완성되자, 붓을 대면 운무가 일고 구름이 움직이며, 글을 쓰면 난새가 휘돌고 봉황이 울었다. 孔融처럼 李膺을 통하여 가치를 얻고, 左思처럼 張華를 찾아가 명성을 얻었다. 郭林宗이 王允의 재능을 듣고 마음으로 수궁하듯 하였고, 王衍이 諸葛宏을 보고 탄복하듯 하였다. 담소하며 응대하고, 좌우를 자유자재로 하였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명철한 군주가 尙書令과 卜射의 벼슬로서 기다리고, 조정에서 黃門侍郎과 散騎常侍의 자리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나라의 빛인 왕을 보고, 왕의 빈객이 될 즈음에는 황제의 처소 앞에서 용이 그려진 휘장을 알현하며 秘書省에서 봉황과 같은 문재를 휘날렸다.¹²⁾

‘文昌’은 비서성을 말하고 ‘나라의 빛인 왕을 보고, 왕의 빈객이 되다’는 과거에 합격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의 첫 번째 벼슬은 秘書省의 正字 등의 하위관직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분명 이때 盧照隣은 秘書省에 있다가 鄧王의 눈에 띄어 발탁되었을 것이다. 당대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저작랑 등의 비 실무적인 직책에 있다가 임지로 발령나가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리는 당연해 보인다.

盧照隣이 자신의 벼슬생활을 상기한 <예전의 경력을 슬퍼하다(悲昔遊)>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려서의 벼슬 생활을 스스로 말하자면, 북쪽의 燕나라에서 와서, 淮南의 향기로운 계수나무가 있는 산맥과, 峴山 북쪽의 밝은 진주가 나는 개천을 거쳐, 동쪽 노나라에서는 孔子의 옛집을 지나고, 서쪽 蜀에서는 孔明의 척박한 밭을 경작하

12)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246쪽, <釋疾文>: 余幼服此殊惠兮, 遂閱禮而聞詩. 於是妻糧尋師, 褰裳訪古, 探舊篆於南越, 得遺書於東魯, 意有缺而必刊, 簡無文而咸補. 入陳適衛, 百舍不厭其棲遑; 累繭重疋, 千里不辭於勞苦. 既而屠龍適就, 刻鵠初成, 下筆則煙飛雲動, 落紙則鸞迴鳳驚. 通李膺而竊價, 造張華而假成. 郭林宗聞而心服, 王夷甫見而神傾. 俯仰談笑, 顧盼縱橫. 自謂明主以令僕相待, 朝廷以黃散爲輕. 及觀國之光, 利用賓王. 謁龍旂於武帳, 揮鳳藻於文昌.

었다.¹³⁾

여기서 ‘淮南’은 壽州를 말하며, ‘峴北’는 襄州를 말하고, ‘東魯’는 兗州를 말한다. 그런데 鄧王의 관직 경력을 살펴보면 壽州刺史 - 襄州刺史 - 兗州刺史의 순으로 이직한다.¹⁴⁾ 모두 鄧王의 관직경력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 보아 盧照隣은 壽州, 襄州, 兗州 등으로 鄧王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盧照隣은 鄧王이 壽州刺史 시절에 鄧王府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盧照隣이 鄧王府에 들어간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가? 鄧王이 壽州刺史 시절에 마침 장안에 와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가 永徽 5년(654)이다.¹⁵⁾ 盧照隣은 이때에 鄧王의 눈에 띄어 典籤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張鷟의 말대로 이때에 그의 나이가 약관(20)이라고 본다면 그는 貞觀 9년(635)에 출생한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앞에서의 추정과도 일치한다.

(2) 蜀에 들어간 횡수와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들어갔다’와 ‘세 번 들어갔다’의 두 가지 설로 크게 나뉘며 또 들어간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도 연구자마다 제각각이다. 본고에서는 세 번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 근거의 하나로 다음의 구절을 들 수 있다. 그가 <樂府雜詩序>에서 ‘이 때에 촉에 세 번 出仕하였다가, 언덕 하나에 병들어 누웠다(時褊巾三蜀, 歸臥一丘)’고 말했는데, 三蜀은 蜀地の 3개의 군을 포함해서 이르는 말로도 볼 수 있지만 또한 세 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중의어로 볼 수도 있다. 즉 세 군데의 蜀地에 세 번에 걸쳐 출사했다는 이야기 이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니 이제부터 다른 근거를 자세히 들겠다.

13)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212쪽, <悲昔遊>: 自言少年遊宦, 來從北燕, 淮南芳桂之嶺, 峴北明珠之川, 東魯則過仲尼之故宅, 西蜀則耕武侯之薄田.

14) 《舊唐書》卷六四, 《高祖二十二子傳·鄧王元裕》: 高宗時, 又曆壽、襄二州刺史、兗州都督.
15)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488쪽.

1) 첫 번째 蜀에 들어간 시기(658-661)

盧照隣이 첫째로 蜀에 들어간 것은 鄧王府에서 전침으로 있으면서 鄧王의 명을 받아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盧照隣의 문집에 보면 <駙馬都尉喬君集序>라는 서문이 있는데 이는 鄧王의 처남인 喬師望에게 써준 것이다.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아 盧照隣과 친분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喬師望의 관직 경력 상 오직 대략 顯慶 3년(658)¹⁶⁾-龍朔 3년(663)¹⁷⁾의 5년간 익주 장사로 있을 당시에만 그 둘의 교유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盧照隣이 촉에 들어간 시간은 이 기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龍朔 2년(662)에는 양주에 머물던 중 막북으로 종군하므로¹⁸⁾ 658-662년 사이에 蜀에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이 때 蜀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鄧王을 수행해서 계속 壽州, 襄州, 兗州 등으로 근무지를 옮긴 것을 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으리라 본다. 蜀에서 지어진 시중에 <보름밤에 燈을 구경하다(十五夜觀燈)>, <益州城 서쪽 張超亭에서 기녀의 춤을 보다(益州城西張超亭觀妓)> 등의 작품들은 모두가 밝고 경쾌한 어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그가 하옥 이후로 촉으로 좌천될 때의 시들과는 다른 곡조를 띠고 있다. 이 또한 그가 新都尉로 좌천되기 이전에 촉에 들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 두 번째 蜀에 들어간 시기(666)

두 번째로 蜀에 들어간 것은 乾封 元年(666)으로 新都尉로 발령이 났을 때이다. 노조린의 신도위로 좌천 될 때의 상황을 적고 있는 다음의 문장을 보자.

이때 천자가 칼을 어루만지고 팔방으로 먼 지방에 전쟁이 있었다. 바람으로 만든

마차를 타고 弱水에 다리를 놓고, 태양을 위해 마차를 끄는 신을 타고 扶桑에 정원을 지었다. 전선 만 척을 연결하고, 鐵騎 천 부대가 길을 떠났다. 文臣은 쥐 숨듯이 하고 용사는 위풍이 당당하니, 나는 기꺼이 경황없이 蜀으로 떠나고 분수에 맞게 조용히 梁王에게 의탁하였다.¹⁹⁾

‘바람으로 만든 마차를 타고 弱水에 다리를 놓고’는 顯慶 2년(657)에 서둘궐을 격파한 사건을 말하고, ‘태양을 위해 마차를 끄는 신을 타고 扶桑에 정원을 지었다’는 顯慶 5년(660)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熊津都督府를 세운 것을 말하고, ‘전선 만 척을 연결하고, 鐵騎 천 부대가 길을 떠났다’는 龍朔 元年(661) 당의 대규모 고구려 2차 침공을 말한다. 그렇다면 위 시기는 대략적으로 龍朔 元年(661)에서 고구려 멸망 해인 總章 元年(668)년 까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고에서는 왜 乾封 元年(666) 32세를 신도위로 좌천되는 시기로 보았는가? 그것은 다음의 시를 본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익주로 가라는 명을 받고 장안을 거쳐 종양역을 출발하다.(奉使益州至長安發鍾陽驛)>

躋險方未夷 위험이 아직 평안해지지 않았건만

乘春聊騁望 봄을 타고 멀리 바라본다.

(중략)

聯翩事羈勒 계속하여 말을 달리니

辛苦勞疲恙 역경에 시달려 몸은 피곤하고 지쳐있다.

夕濟幾潺湲 저녁에 강을 건널 때는 강물이 얼마나 흐느끼던가?

晨登每惆悵 아침에 오를 때는 항상 근심에 쌓여있다.

誰念復芻狗 누가 다시 이렇게 초라해질 줄 알았던가?

山河獨偏喪 산하에 나 홀로 짝을 잃었네.

이 시의 제목을 보자. ‘奉使’라는 단어는 奉命해서 出使한다는 의미이다. 당대의 시에서 奉命 다음에 지명이 나오면 그 지방에 가서 벼슬살이를 한다는 말이다. 그

16) 《會要》 卷六二: ‘顯慶 3년 7월에 監察禦史 胡元範이 越雋지역에 사신으로 가다가 益州에 도착하였다. 駙馬都尉 喬師望이 長史로 있었는데 나와서 맞아 들었다.(顯慶三年七月, 監察禦史胡元範使越, 至益州, 駙馬都尉喬師望爲長史, 出迎之)’

17) 《元和郡縣圖志》 卷三一, 《成都府·廣都縣》: 지금의 廣都縣은 龍朔 3년(663)에 長史 喬師望이 다시 설치한 것이다(今廣都縣, 龍朔 三年(663)長史喬師望重奏置).

18) 黃晴惠, 《初唐四傑傳記考辨及其文學思想研究》(國立臺灣大學 碩士學位論文, 1996), 77쪽.

19) 盧照鄰 著, 李雲逸 校注, 《盧照鄰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250쪽, <釋疾文>: 是時也, 天子按劍, 方有事於八荒, 駕風輪而梁弱水, 飛日馭而苑扶桑; 戈船萬計兮連屬, 鐵騎千羣兮啓行, 文臣鼠竄, 猛士鷹揚, 故吾甘栖栖以赴蜀, 分默默以從梁.

렇다면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즉 ‘益州를 임지로 명받아(兗州로부터) 長安으로 도착한 다음 鍾陽驛을 출발한다’이다. 이전에는 부임을 받으면 먼저 경성으로 가서 임명장을 받아 임지에 도착하여야 하였다. 그러므로 익주의 新都尉에 임명되어 장안을 거쳐 鍾陽驛을 출발하여 익주로 떠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와는 달리 이운일은 壽州 시절에 蜀에 사신으로 갔다가 장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어진 시로 보면서 ‘益州에 사신으로 갔다가 장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鍾陽驛을 출발하다’라고 해석한다.²⁰⁾ 강애농은 新都尉의 직에 있을 때 장안에 사신으로 다녀오라는 명을 받아 ‘益州로부터 장안으로 가라는 명을 받고 鍾陽驛을 출발하다’²¹⁾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렇게 끊어 읽는 것은 문장구조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원칙, 즉 그가 장안으로 갈 때는 항상 기뻐하였고, 축으로 갈 때는 항상 슬퍼하였다는 전제²²⁾에 어긋난다. 그가 장안으로 사신으로 간다면 분명 이렇게 낙담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축으로 발령이 났을 때 지어진 것이 분명하다.

하옥사건 이후로 來濟와 鄧王이 龍朔 2년(662)과 麟德 2년(665)에 차례로 죽는데, 이로써 盧照隣을 후원해 주던 양대 지주가 사라져 버린다. 鄧王의 적극적 신뢰가 있던 盧照隣이 위의 시에서와 같이 신분낙하와 신세 고립을 한탄하는 것은 來濟와 鄧王의 연속된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의 비호세력도 없어지고, 또한 新都尉로 좌천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등왕이 죽은 것은 麟德 2년(665) 늦가을이고, 이 시는 봄의 시기를 나타내니, 乾封 元年(666) 32세 봄이 틀림없다. 乾封 元年(666) 여름에 盧照隣은 이미 신도위의 직책에 있었으니²³⁾ 이런 추론은 당연하다.

그리고 다음의 시는 新都尉의 생활을 마치고 秘書省으로 발령이 나서 장안으로

20)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489쪽.

21) 康愛農, 《盧照隣生平若干問題高辨》(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18쪽.

22) <望喜에 도착해 마주 보며 속에 있는 말을 蜀에 있는 지기에게 써주다(至望喜矚目言懷貽劍外知己)>: 북쪽을 생각하면 항상 말머리를 그곳으로 향하게 되고, 남쪽으로 갈 때면 매번 무리를 잃음을 슬퍼하네.(思北常依馭, 圖南每喪群.)

23) 노조린이 益州長史 胡樹禮가 죽들에게 써준 <相樂夫人檀龕讚>에서 “乾封 元年(666) 칠월에(粵以乾封紀歲, 流火司辰)”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구자들은 666년에 노조린이 신도위의 직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돌아가는 길에 적은 시이다.

<아침 일찍	분수령을 넘다(早度分水嶺)
丁年遊蜀道	젊은 나이에 蜀으로 유람 갔다가
班鬢向長安	희끗희끗한 머리 되어 장안으로 돌아온다.
徒費周王粟	공연히 周王의 곡식만 축내고
空彈漢吏冠	한나라의 벼슬만 차지했다.
馬蹄穿欲盡	말발굽은 닳아서 없어지려 하고
貂裘敝轉寒	갓옷은 낡아서 더욱 추위를 탄다.
層巒橫九折	층층이 쌓인 얼음은 九折을 능가하고
積石凌七盤	높이 쌓인 바위는 七盤보다 험준하다.
重溪既下漱	겹겹의 계곡물은 아래로 흘러가고
峻峰亦上幹	험악한 봉우리는 하늘로 치솟는다.
隴頭聞戍鼓	隴頭에서는 변방의 북이 울리고
嶺外咽飛湍	산 너머에는 급물살이 쏟아진다.
瑟瑟松風急	쌩쌩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세차고
蒼蒼山月圓	초목이 무성한 산에는 달이 둥글다.
傳語後來者	뒤에 오는 사람에게 말을 전하노니
斯路誠獨難	이 길은 유독 험난하다.

위의 시는 축에서의 임무를 어렵게 끝내고 돌아가는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蘇秦의 고사²⁴⁾와 王吉의 고사²⁵⁾를 인용해 그가 여전히 관직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는 新都尉에서 秘書省으로 발령 났을 때 쓴 것이 틀림없다. 이에 대해선 다음 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3) 세 번째 蜀에 들어간 시기(669)

總章 2년(669) 35세에 盧照隣은 말단 관리로서 왕의 덕화를 선양하는 임무를 띠고 축으로 파견된다.²⁶⁾ 그는 전문적으로 덕화에 사용할 臺閣體의 시 <登封大酺歌

24) 蘇秦이 秦에서 遊說하였으나, 아무런 득도 없이 생활비만 떨어져 초라하게 돌아갔다.

25) 漢나라의 貢禹와 王吉은 절친한 사이였는데, 항상 관직에 함께 나아갔다.

26) <對蜀父老問>: 總章 2년(669) 여름에 나는 장안에서 축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은 왕의 일

四首>와 <中和樂九章>을 지어 蜀의 父老에게 왕의 德化를 선양하는데²⁷⁾, 이 시들이 조정에서 차례로 일어난 여덟 가지 큰 사건들에 대해서 무미건조하고 의무적인 찬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 창작이라기보다는 업무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秘書省의 업무에는 왕의 덕화선양이라는 조목이 있으므로 이 시들은 노조린이 비서성에서 근무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다음의 시는 그가 왕의 덕화 선양을 위해 세 번째로 蜀에 들어가다가 知己를 만나 써준 시이다.

<望喜에 도착해 마주 보며 속에 있는 말을 蜀에 있는 지기에게 써주다(至望喜 矚目言懷貽劍外知己)>

聖圖夷九折 성스런 계획으로 축으로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神化掩三分 신령스런 조화는 삼국의 분열을 종식 시켰네.
 緘愁赴蜀道 근심을 감추고 축도로 달려가니
 題拙奉虞薰 졸렬한 시제는 舜과 같은 왕의 덕화를 받든다는 것이네.
 (중략)

思北常依馭 북쪽을 생각하면 항상 말머리를 그곳으로 향하게 되고
 圖南每喪群 매번 남쪽으로 갈 때면 무리를 잃음을 슬퍼하네.
 無由召宣室 賈誼가 왕에게 불러간 듯한 기회가 없으니
 何以答吾君 어찌 우리 임금에게 고할까?

위의 ‘매번 남쪽으로 갈 때면 무리를 잃음을 슬퍼하네’의 구절에서 그가 축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미 3번 이상이란 암시를 받는데다가 ‘졸렬한 시제는 舜과 같은 왕의 덕화를 받든다는 것이네.’의 구절이 뜻하는 바가 <登封大酺歌四首>와 <中和樂九章>를 말한다는 것을 참작한다면, 이 시가 總章 2년(669)에 왕의 덕화를 선양하는 임무를 띠고 세 번째 축으로 파견될 때 지어진 시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왕의 덕화를 선양하러 간 길이었지만 본인 자신은 좌천됐다는 우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도중에 임무를 포기하고 왕발과 함께 蜀에서

술과 시로 자연을 만끽한다. 다시 축에서의 漫遊마저 싫증이나 고향으로 출발하기 위해 여비를 모으는데 다음의 시는 이때 지어졌다.

<익주부에 있는 여러 관리에게 드림(贈益府群官)>
 (생략)

羽翻毛衣短 날개의 깃털은 짧고
 關山道路長 거쳐야 될 關과 山의 길은 멀다.
 明月流客思 밝은 달빛에 나그네의 시름은 흐르고
 白雲迷故鄉 흰 구름은 고향을 가린다.
 誰能借風便 누가 바람을 빌려주어
 一舉凌蒼蒼 한 번에 하늘 높이 날수 있다면

위 시는 ‘毛衣短’의 구절을 통해서 처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借風便’를 통해서 여비를 도와 달라는 뜻을 간곡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는 경비를 구걸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사적인 여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가 관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노조린이 咸亨 2년(671) 37세에 과거에 응시하는 정황과도 맞아 떨어진다. 노조린은 이후 咸亨 4년(673) 39세에 장안에서 질병으로 몸져눕고, 다시 계속해서 太白山, 東龍門山, 具茨山 등에서 요양하느라, 다시 蜀에 들어간 적이 없으므로 이번이 蜀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길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蜀에서 나오는 이때 수로를 이용했다고 보이는데 <巫山高>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기 때문이다.

巫山望不極 巫山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望望下朝氛 바라보니 아침 안개 내려온다.
 (중략)
 沾裳卽此地 이미 이곳에서 눈물로 치마를 적시니
 況復遠思君 더욱이 멀리에서 그대를 생각함에 있어서랴!

여기서 盧照隣이 그리는 상대는 바로 郭씨 성의 여자로서 駱賓王의 <豔情代郭氏答盧照隣> 시에서 咸亨 2년 초에 노조린과 헤어졌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시

을 받든 것이다.(龍集荒落, 律紀蕤賓, 余自鄴鎬, 歸於五津, 從王事也)
 27) <對蜀父老問> 지금 그대에게 <中和樂九章>과 <登封大酺歌四首>의 작품을 전해 주겠소.(今將授子以中和之樂, 申子以封禪之篇)

는 咸亨 2년(671) 초에 지어진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에서 나오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分水嶺을 통해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장강을 타고 三峽을 지나 나오는 것인데 지금 三峽에 이르러서 ‘벌써 그대에 대한 그리움으로 목 메인 마당에 더 멀어져서는 얼마나 더 괴로울 것인가?’라고 슬퍼하는 대목을 보면, 노조린이 郭씨 성의 여자와 咸亨 2년(671)에 헤어진 후 장강을 타고 三峽을 통해서 蜀을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시 <익주부에 있는 여러 관리에게 드림(贈益府群官)>에서 보면 盧照隣은 처음에는 洛陽에 있는 본가로 목적지를 정한 듯하다. <豔情代郭氏答盧照鄰>시에도 洛陽을 향해 떠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駱祥發은 도중에 동행이었던 王勃의 권유로 과거를 보기 위해 장안으로 경로를 우회한다고 하는데²⁸⁾ 그 말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咸亨 2년(671) 겨울에 초당사결이 모두 과거에 응시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²⁹⁾ 盧照隣은 장안에서의 과거를 마치고 다시 원래의 목적지인 洛陽으로 출발 한다. <裴舍人 등 제공께서 주신 옷과 약 값에 대한 답장(寄裴舍人諸公遺衣藥直書)>

우리 집은 咸亨 중에 양반과 하인이 모두 백 명이나 됐으나 부친상 이후 집안의 남·여동생들이 죽어 7-8년 안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다.³⁰⁾

이로 보아 그는 ‘咸亨中’에 집에 다녀온 것이 명확해 보인다. 咸亨은 총 5년 까지 있으므로 ‘咸亨中’이 咸亨 3년(672)을 말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 편지가 쓰인 調露 2년(680)³¹⁾에서 8년을 빼면 咸亨 3년(672)이 되므로 ‘7-8년 안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다’의 말과도 맞아 떨어진다.

28) 駱祥發, 《初唐四傑研究》(北京: 東方出版社, 1993), 68쪽.

29) 張說, <贈太尉裴公神道碑>: 과거시험에서 駱賓王, 盧照隣, 王勃, 楊炯을 보고 평가하여 말하길 “楊炯은 비록 재주와 명성이 있으나 현령에 그칠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화려하고 실속이 없어 현령도 되기 힘들다.”(在選曹見駱賓王、盧照隣、王勃、楊炯, 評曰: “炯雖有才名, 不過令長, 其餘華而不實, 鮮克令終.”)

30)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393쪽. <寄裴舍人諸公遺衣藥直書>: 余家咸亨中, 良賤百口, 自丁家難, 私門弟妹凋喪, 七、八年間貨用都盡.

31)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507쪽.

(3) 秘書省 근무 시기

盧照隣은 왕의 덕화 선양 임무를 수행하다 회의가 들어 도중에 똑 같은 시련을 받는 王勃과 함께 술과 시로 蜀의 자연풍광을 맘껏 소요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그가 다시 咸亨 4년(673) 39세에 장안 秘書省에 나타났을 때 그는 아무런 관직도 없애 秘書省에 드나들며, 秘書少監 崔行功에게 관직을 부탁하게 되는데 <雙槿樹賦序>에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어제 秘書省에서 여러 저작郎들이 다투어 雙槿樹賦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벼슬 없이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바위에 거하고 콩잎을 먹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周나라에 도서관에 거해도 老子처럼 柱下史가 아니고, 한 대에 처해도 朱雲처럼 경작할 밭이 없습니다. 학문이 미천해 문장에 고루한 바가 많아, 마땅히 쥐 숨듯이 하여 조용히 있어야 하나 아마도 궁핍해지면 영달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상정이고, 낮으면 다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사물의 이치입니다.³²⁾

‘周나라에 도서관에 거해도 老子처럼 柱下史가 아니고, 한 대에 처해도 朱雲처럼 경작할 밭이 없습니다.’의 문장을 보더라도 그가 비서성의 말단 직원으로 있다가 은퇴했음을 알 수 있다. 강애농은 ‘벼슬 없이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바위에 거하고 콩잎을 먹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의 문장을 들어 ‘秘書省에서 있었으되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³³⁾고 주장하는데, 그가 秘書省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은 <산장에 서의 휴일(山莊休沐)>에서 ‘비서성에서 휴일을 틈타, 사립문 안에 은거한다.(蘭署乘閒日, 蓬扉狎遁棲)’라고 말할 것을 봐도 명확한 사실로 보인다. 이운일은 이시가 秘書省에 있는 직원들이 외유할 때 따라갔다가 지은 시라고 하는데³⁴⁾ 이치에 맞지 않다. 본고에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盧照隣은 咸亨 4년(673)에 무단으로 秘書省에 나타나는데 이는 벼슬을 그만두기 직전에 秘書省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32)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12쪽, <雙槿樹賦序>: 日昨于著作局, 見諸著作競寫雙槿樹賦, 若布衣藜杖, 巖棲藿食, 居周室而非史, 處漢代而無田, 學涉燕淺, 文多替漏, 宜其屏竄, 用其靜默, 蓋窮而思達, 人之情也, 卑而應高, 物之理也.

33) 康愛農, 《盧照隣生平若干問題高辨》(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25쪽.

34)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501쪽.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갑자기 秘書省에 나타나서 관직을 부탁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비록 축상서는 總章 2년(669)에 노조린이 신도위로 좌천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³⁵⁾ 본고는 總章 元年(668) 34세에 비서성에 들어가 總章 2년(669) 35세에 秘書省의 직원으로서 蜀에 왕의 덕화 선양 차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로 노조린이 다시 秘書省에서 근무를 하지는 안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咸亨 4년(673)에 쓰인 <許左丞이 황제를 수행해 萬年宮에 가는 것에 부침(贈許左丞從駕萬年宮)>에서 ‘寂寂芸香閣, 離思獨悠哉(적막한 秘書省에서 이별의 슬픔 홀로 그윽하네)’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秘書省에 계속 드나든 것만은 사실이다.

(4) 盧照隣의 하옥시기

하옥에 대한 얘기는 먼저 그가 변방으로 出征을 갔느냐? 안 갔느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쇠가 있다고 본다. 그가 변방에 사절로 갔다는 의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다음의 시는 <吳侍御가 燕然都護府에 사신으로 가는 것에 화답함(和吳侍御被使燕然)>시와 함께 盧照隣이 서쪽에 사신으로 가서 변세를 나갔다는 근거가 되는 시이다.

<서쪽에 사신으로 가며, 孟學士가 남쪽으로 가는 것을 배웅함(西使兼送孟學士南遊)>
 地道巴陵北 巴陵의 북쪽에 있는 지하도와
 天山弱水東 天山에 있는 弱水の 동쪽.
 相看萬餘里 서로 萬리나 되는 길을
 共倚一征蓬 모두 한날 旂대와 같은 신세.
 零雨悲王粲 축축이 내리는 비는 王粲과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淸樽別孔融 잔에 든 맑은 술은 孔融을 배웅한다.
 徘徊聞夜鶴 배회하며 학의 밤 울음소리 듣고
 悵望待秋鴻 슬피 바라보며 가을 기러기를 기다린다.

骨肉胡秦外 가족은 胡秦의 밖에 있고
 風塵關塞中 風塵은 변세의 가운데 있다.
 唯餘劒鋒在 오직 검의 날만 서있다면
 耿耿氣成虹 밝게 빛나서 무지개가 되리라.

첫 구는 孟學士가 南遊하러 가는 목적지를 말하고 두 번째 구는 盧照隣이 사신으로 가는 祁連山을 말한다. 10, 11구의 ‘風塵’, ‘劒鋒’ 등의 시어로서 변방에 전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盧照隣이 변방으로 종군했다는 논거는 劉眞倫의 <盧照隣西使甘涼及其邊塞組詩考述>³⁶⁾의 논문에 상세하므로 따로 논하지 않겠다. 이운일은 이 시의 내용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러한 계획이 있었으나 취소되었다고 하니 맞지 않다. 그의 여러 가지 변세시가 鐵勒九部가 침범한 祁連山 한 곳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더라도 그가 변세에 다녀왔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분명히 盧照隣은 전쟁에서 심한 고초를 맞보았으며 그가 소속한 군대는 사막에서 폭설을 만나, 추위와 기아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굶주림으로 서로를 잡아먹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뿔뿔이 흩어져 장안으로 돌아오다 군법에 회부되어 장안에서 하옥된 것으로 보인다.³⁷⁾ 지금까지 일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장안에서 하옥되었다는 설을 주장한 연구자는 없다. 그러나 본고는 다음의 시를 장안에서 하옥된 근거로 주장 한다.

<무리를 잃은 기러기(失群雁)>
 三秋北地雪皚皚 늦가을에 북쪽의 눈은 희디희고
 萬里南翔渡海來 萬리를 날아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날아 왔다.
 欲隨石燕沉湘水 石燕을 따라 湘水에 잠기고 싶지만
 試逐銅鳥繞帝臺 시험 삼아 銅鳥를 뒤따라 帝臺 맴돈다.
 帝臺銀闕距金塘 帝臺와 銀闕은 金塘에 까지 이어져 있는데
 中間鵝鷺已成行 중간에 관리들은 이미 줄을 지어 날고 있다.
 先過上苑傳書信 먼저 上苑에 들려 편지를 전하고
 暫下中州戲稻梁 잠시 中州에 내려 곡식을 먹는다.

35) 盧照隣 著, 祝尙書 校注, 《盧照隣集箋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564쪽.

36) 劉眞倫, <盧照隣西使甘涼及其邊塞組詩考述>, 《重慶師範大學學報》, 1989.

37) 張志烈, 《初唐四傑年譜》(巴蜀書社, 1993年4月), 82쪽.

虞人負繳來相及 정원을 지키는 관리가 주살을 들고 달려들고
齊客虛弓忽見傷齊나라 손님의 빈 활에 갑자기 상처를 입으니
毛翎憔悴飛無力 날개는 초췌하여 날 힘이 없고
羽翮摧頹君不識 날개가 꺾이고 깃털이 빠진 것을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唯有莊周解愛鳴 오직 莊周만이 슬픈 울음을 이해하고
複道郊歌重奇色 겹으로 된 통로의 천자의 郊祀歌는 화려한 색을 중시한다.
惆悵驚思悲未已 슬프고 놀란 생각에 슬프기 그지없다.
裴回自憐中罔極 방황하며 스스로를 연민함에 마음은 망막하다.

(중략)

願君弄影鳳凰池 그대가 중서성의 자리에 오르길 원하니
時憶籠中摧折羽 가끔 우리에게 갇혀 날개 부러진 새도 생각하여 주게나.

지금까지 이 시에 대한 해석은 詠物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만약 이 시를 從軍詩로 본다면 그 내용은 확연히 다른 것이 될 것이다. 그럼 시를 보도록 하자.

사실 이곳에서 기러기란 천자의 사신을 의미하는 蘇武에 대한 전고를 원용한 것이다. 기러기는 盧照隣 자신을 가리킨다. 여기서 盧照隣이 중군했다는 확실한 단서는 ‘渡海’라는 시어로 漠北³⁸⁾으로 중군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단어이다. 漠北에서 장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北海를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北海는 瀚海라고도 하는데 한나라의 광거병이 흉노를 무찌르고 瀚海를 거쳐 돌아왔다는 그곳이다.³⁹⁾ 盧照隣은 鄧王府가 있는 襄州로 가기 전에 장안에 들러 보고를 하다가 장안에서 하옥이 된 것이다. ‘上苑’은 황제가 있는 장안을 가리키고 ‘虞人’은 황제의 근위병을 상징한다. ‘石燕’은 零陵山에 있는 바위로 鄧王府가 있는 襄州를 지칭한다. 즉 鄧王府에 먼저 가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를 보면 盧照隣은 장안에서 하옥된 게 확실하다. 문인으로서 盧照隣은 철륵구부의 정벌에 중군하여 부대원거리 잡아먹는 광경에서 그 공포와 위기를 피해 대열을 이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이로 인해 처벌받아 하옥되는데 이러한 경력은 그에겐 수치스러운 것으로

38) 漠北은 瀚海 이북의 사막지역을 말한다.

39) 《史記·匈奴列傳》: 漢나라의 驃騎將軍이 代나라를 2천 여 리 나가서, ……狼居胥山과 姑衍에 봉선제를 지내고, 瀚海를 거쳐 돌아왔다.(《史記·匈奴列傳》: 漢驃騎將軍之出代二千餘裏, ……封於狼居胥山, 禪姑衍, 臨瀚海而還)

그것이 이후에 자신의 결백에 대한 주장이나, 변방에 다녀온 경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盧照隣과 같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계속 좌천당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뒤통스런 못한 북역경력 때문일 것이다. <釋疾文>에서 ‘文臣은 쥐 숨듯 하고, 용사는 위풍당당하니, 나는 기꺼이 경황없이 蜀으로 떠나고, 분수에 맞게 조용히 梁王에게 의탁하였다.(文臣鼠竄, 猛士鷹揚. 故吾甘棲棲以赴蜀, 分默默以從梁)’라고 말하는 위축된 감정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보다 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다음 시를 보도록 하자.

<臨津의 紀현령의 <孤鴈>시에 화답하다.(同臨津紀明府孤鴈)>

三秋違北地 늦가을에 북쪽을 떠나
萬里向南翔 만 리나 남쪽으로 날아간다.
河洲花稍白 강가의 모래톱에는 꽃이 하얗고
關塞葉初黃 변방에는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다.
避繳風霜勁 주살을 피하여 가자니 바람과 서리가 차갑고
懷書道路長 조서를 전하는 길은 멀기만 하다.
水流疑箭動 흐르는 물은 화살이 나는 듯하고
月照似弓傷 달빛은 마치 활이 겨냥한 듯하다.
橫天無有陣 하늘을 가로지르되 진을 펼치지 못하고
度海不成行 바다를 건너되 행렬이 되지 못한다.
會刷能鳴羽 상처를 치료하여 울 수 있는 새만이
還赴上林鄉 여전히 장안으로 날아간다.

이 시도 또한 詠物詩로써 해석되어 왔으나 <失群雁>와 마찬가지로 從軍詩로써, ‘懷書’를 통해서 기러기가 盧照隣 자신인 천자의 사신임을 드러내었고, 달과 물을 활과 화살로 착각하는 모습에서 전쟁의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나타내었다. 기러기가 무리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살아남은 자만이 뿔뿔이 흩어져 장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의거하여 盧照隣이 新都尉로 발령이 나기 전에 장안에서 하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新都尉는 그 하옥의 대가로 좌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 太白山, 東龍門山, 具茨山으로 옮긴 시기

盧照隣이 처음으로 太白山에 들어가서 요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스승으로 모신 孫思邈이 上元 元年(674)에 은거하였기 때문에 스승에게 계속 치료받고자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구절을 보자.

幽憂자가 東龍門山 佛舍에서 도를 배우는데, 삼베옷에 콩국을 먹으며, 바위의 한 구석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에 關西 太白山 밑에 있을 적에 한 은사가 玄明膏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⁴⁰⁾

그가 東龍門山에서 요양하기 전에 스스로 太白山에서 服食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太白山과 東龍門山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가 병든 몸으로 이렇게 멀리 이동한 이유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일 것이다. 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 중에 부친의 상이 가장 유력한 동기로 보인다. 당시 盧照隣의 가족은 洛陽에 살고 있었다. 東龍門山은 洛陽의 근교에 있다. 그는 부친상에서 지나친 슬픔으로 병이 도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병든 몸으로 먼 길을 달려온 것도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사실 아버지의 상으로 인해 병이 도지기 전에는 그는 기동에 그리 불편함이 없었던 듯하다. 太白山 은거시절에 지어진⁴¹⁾ <산중에 병들어 누워있다(羈臥山中)>의 “밤에는 굶주린 날다람쥐를 친구 삼아 자고, 아침에는 길들여진 꿩을 따라 걷는다. 개울을 건넌 곳은 생각이 나지만, 애써 찾은 석실은 그 이름을 모르겠다(夜伴饑鼯宿, 朝隨馴雉行, 度溪猶憶處, 尋洞不知名)”의 구절을 보면 산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작자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어느 정도는 孫思邈의 치료가 효과를 보았던 듯하다. 부친의 상은 上元 2년(675)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²⁾ 그는 洛陽의 본가에서 부친의 상을 마치고 3-4년 누워 있다가 調露

元年(679) 45세에 다시 근교의 東龍門山으로 요양장소를 옮겼을 것이다. 이유는 전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격리가 필요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東龍門山에서 그는 佛舍를 짓는 등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불교에 귀의한다. 이 시기에 그는 洛陽으로 다음과 같은 <洛陽의 유명한 조정인사들에게 약값을 구걸하는 편지(與洛陽名流朝士乞藥直書)>의 편지글을 보낸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자, 다시 <裴舍人 등 제공께서 주신 옷과 약 값에 대한 답장(寄裴舍人諸公遺衣藥直書)>의 답례 편지를 보낸다.

산에서 부리는 노비가 洛陽에서 도착하였습니다. 太子舍人 裴瑾之, 太子舍人 韋方賢, 左史 範履冰, 水部員外郎 獨孤思莊, 少府丞舍人內供奉閻知微, 符璽郎 喬備 등이 모두 저의 병에 대해서 묻고, 또한 예물을 보내어 東山에서의 약값에 쓰도록 하였습니다.⁴³⁾

이 편지에 나오는 範履冰과 獨孤思莊의 傳記를 바탕으로 이운일은 이 편지가 전해진 시기가 무후와 고종이 洛陽으로 와있던 調露 2년(680)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⁴⁴⁾ 東龍門山에서 병이 더욱 깊어지고 손과 발마저 마비되자 盧照隣은 東龍門山에서 具茨山으로 옮긴다. 아마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결단을 내린 듯하다. 왜냐면 그는 具茨山으로 옮긴 후, 집 주위로 潁水의 물을 끌어들여 돌아나가게 하고, 집 옆에는 무덤을 만들어 그 안에 누워있고는 하였기 때문이다.⁴⁵⁾ 具茨山은 백이와 숙제의 발자취가 있는 곳이었기⁴⁶⁾ 때문에 작자의 마음을 끌어 당긴지도 모를 일이다. 게다가 具茨山과 東龍門山은 가까워서 여행

40)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388쪽, <與洛陽名流朝士乞藥直書>: 幽憂子學道於東龍門山精舍, 布衣藜羹, 堅臥於一巖之曲. ……昔在關西太白山下, 一隱士多玄明膏.

41)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141쪽.

42) 黃晴惠, 《初唐四傑傳記考辨及其文學思想研究》(國立臺灣大學 碩士學位論文, 1996), 93쪽.

43)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392-393쪽. <寄裴舍人諸公遺衣藥直書>: 山僕自至都, 太子舍人裴瑾之, 太子舍人韋方賢, 左史範履冰, 水部員外郎獨孤思莊, 少府丞舍人內供奉閻知微, 符璽郎喬備, 並有書問余疾, 兼致束帛之禮, 以供東山衣藥之費.

44)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507쪽.

45) 《新唐書·盧照隣傳》: 질병이 심해지자 다리가 오그라들고 한 쪽 손도 못쓰게 되자, 具茨山 밑으로 가서 땅 수십 모를 사서 潁水를 끌어다 집 주위로 두르게 하고 다시 미리 무덤을 만들어 그 안에 눕곤 하였다.(疾甚, 足攣, 一手又廢, 乃去具茨山下, 買園數十畝, 疏潁水周舍, 復豫爲墓, 偃臥其中)

46) 백이와 숙제의 사당이 中條山에 있다. 具茨山은 中條山과 가까이에 있다.

의 고단함이 덜하기도 하다. 아마도 불사를 증축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서 그곳에서 자신이 자살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를 일이다. 具茨山으로 이거한 시기에 관해서는 현존자료로써 밝히기가 어렵다. 다만 萬歲 元年(695) 61세 이후에 쓰인 《釋疾文》에서 ‘내가 병져 누워 일어나지 못하니 이미 십년이다.(余羸臥不起, 行已十年)’라고 말한 것을 봐서 십년 전 즈음으로 추산 할 수 있다. 대략 垂拱 元年(685) 51세 즈음에 具茨山으로 이거한 것으로 보인다.

(6) 盧照隣의 사망 연도

盧照隣이 언제 죽었느냐에 관해서는 다음의 <병에서 해방됨(釋疾文)>에 대한 해석에서 관가름이 날 것이라고 본다.

이전 황제(고종)은 文吏를 좋아하였으나 나는 마침 공자와 목자의 도를 배웠으며, 지금의 황제(무후)는 법가를 좋아하나 나는 늘그막에 老莊을 배웠다. 저 동그란 구멍에 네모난 지도리가 서로 이가 안 맞아 맞지 않음을 알겠다. ……그 후 웅대한 도략이 끝나고 봉선을 하는 날, 雲臺에서 고상한 의론을 구하고 석굴에서 奇文을 구하여,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고 전마를 쉬게 하여 유학의 도를 높이려 할 때에, 여러 차례 초빙의 편지를 보내왔으나 마침 나는 근심스런 병에 걸려 있었다.⁴⁷⁾

위의 문장은 간단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특히 ‘登封禮日’에 대한 해석에서 高宗이 華山에 봉선한 것을 말한다는 설과 武后가 嵩山에 봉선한 것을 말한다는 설 등 두 가지가 있다. 高宗의 봉선은 乾封 元年(666) 이고 武后의 봉선은 萬歲 元年(695)이므로 3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언제나에 따라서 盧照隣의 卒年이 30년이나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이다. 근래의 모든 연구자들은 高宗의 ‘華山封禪說’을 따른다. 오직 《新唐書》만이 武后의 ‘嵩山封禪說’을 따

47)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北京: 中華書局, 1998), 250-251쪽, <釋疾文>: 先朝好吏, 予方學於孔墨, 今上好法, 予晚受乎老莊, 彼圓鑿而方柄, 知齟齬而無當, ……其後雄圖甫畢, 登封禮日, 方欲訪高議于雲臺, 考奇文于石室, 銷兵車兮爲農器, 休牛馬兮崇儒術, 屢下蒲帛之書, 值余有幽憂之疾.

르고 있다. 이 문장에 대한 《新唐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新唐書·盧照隣傳》의 기록을 보자.

盧照隣은 스스로 高宗 때에는 文吏를 높이는데 자신은 홀로 유교를 배우고, 武后 때에는 법가를 높이는데 홀로 黃老를 배웠으며, 후에 嵩山에 봉선하고 여러 번 賢士를 초빙하자 자기는 이미 폐인이 되어 있었다고 여겼다.⁴⁸⁾

본고는 衆說과는 다르게 萬歲 元年(695)의 ‘嵩山封禪說’을 따르고 있다. 이유인 즉은 盧照隣이 병에 걸린 것은 咸亨 4년(673) 39세의 일이므로 乾封 元年(666)에 비해 7년이나 이후이다. 그러나 위의 <병에서 해방됨(釋疾文)>에서 봉선을 하였을 때는 盧照隣이 이미 병들어 있을 때를 만났다고 하였으므로 맞지 않다. 게다가 봉선 이후 고구려와의 전쟁이 더 있었는데, 그 규모는 수륙 양군으로 30-40만을 헤아린다. 그런데도 어찌 ‘모든 웅건한 포부가 끝났다.(雄圖甫畢)’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위의 봉선은 萬歲 元年(695)의 嵩山의 封禪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盧照隣은 695년 61세 이후에 그의 絕筆인 <병에서 해방됨(釋疾文)>을 마지막으로 자살했을 것이다.

3. 결 론

이상으로 盧照隣 생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노조린의 출생 시기에 관한 많은 학설 중에 貞觀 8년(634)과 貞觀 9년(635)의 설이 가장 근접하나, 본고는 논증을 거쳐 貞觀 9년(635)으로 정하였다. 게다가 蜀에 들어간 횡수에서 두 번과 세 번의 說로 分岐되나 본고는 논증을 통하여 세 번이라고 확정 지었고, 기존에 세 번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說들도 대부분 시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지

48) 《新唐書·盧照隣傳》: 照隣自以當高宗時尙吏, 己獨儒; 武后尙法, 己獨黃老; 後封嵩山, 屢聘賢士, 己已廢.

만 본고에서는 노조린의 작품을 통해 그 시기를 정했다. 졸년에 관해서는 대부분 <병에서 해방됨(釋疾文)>에서 말하는 봉선이 乾封 元年(666)의 華山封禪이라는 설을 따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萬歲 元年(695)의 ‘嵩山封禪說’의 합리성을 들어 그의 졸년을 695년 이후로 보았다. 노조린의 생애에 대한 고찰에서, 본고는 여러 가지 설이 분기되는 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선택하고 또 새로운 논증을 보태었는데 그 기본 구성은 기존의 어떤 연보와도 맥락이 다르므로 이전의 견해를 답습한 것은 아니다. 종군에서의 실책으로 인하여 장안으로 돌아오는 중에 하옥되었다는 설은 본고의 새로운 견해로 그 동안 오리무중에서 진행되던 노조린의 하옥장소와 시기에 대해 새로운 답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參考文獻 >

盧照隣 著, 李雲逸 校注, 《盧照隣集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8.
 _____, 祝尙書 校注, 《盧照隣集箋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_____, 任國緒 箋注, 《盧照隣集編年箋注》,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盧照隣·楊炯 著, 徐明霞 編著, 《盧照隣集楊炯集》, 北京: 中華書局出版, 1984.
 王 勃 著, 蔣清翔 註, 《王勃集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駱賓王 著, 陳熙晉 箋注, 《駱臨海集箋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辛文房 著, 傅璿琮 主編, 《唐才子傳校箋》, 北京: 中華書局, 2002.
 計有功, 《唐詩紀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65.
 郭茂倩, 《樂府詩集》, 北京: 中華書局, 1979.
 彭定求, 楊中訥 等,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1.
 張志熱, 《初唐四傑年譜》 成都: 巴蜀書社出版社, 1992.
 高玉昆 著, 費振剛 主編, 《初唐四傑暨陳子昂詩傳》, 吉林人民出版社, 2002.
 傅璿琮 主編, 《唐五代文學編年史》, 沈陽: 遼海出版社, 1998.
 葛曉音, 《詩國高潮與盛唐文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駱祥發, 《初唐四傑研究》, 北京: 東方出版社, 1993.
 Stephen Owen 著, 장세후 譯, 《초당시》, 서울: 중문출판사, 2000.
 안병국, 《初唐四傑詩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김관수, 《盧照隣 詩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李 偉, 《盧照隣研究中幾個問題的商榷》, 遼寧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2.
 蔡淑月, 《初唐四傑邊塞詩研究》, 國立彰化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1999.
 劉真倫, <盧照隣西使甘涼及其邊塞組詩考述>, 重慶師範大學學報, 1989.
 黃晴惠, 《初唐四傑傳記考辨及其文學思想研究》, 國立臺灣大學 碩士學位論文, 1996.
 康愛農, 《盧照隣生平若干問題高辨》, 首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程 榮, 《談盧照隣病中創作》, 安徽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聞一多, <四傑>, 袁千正編選《聞一多古典文學論著選集》, 武昌: 武漢大學出版社, 1993.
 _____, 《聞一多全集》, 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82.
 張申平, <盧照隣生命意識對其詩歌的影響>, 《重慶科技學院學報》, 2006.
 李朝軍, <人與惡疾的悲壯抗爭—盧照隣之死發微>, 《河北大學學報》, 2004.01.
 饒術成, <孫思邈與盧照隣>, 《家庭中醫藥》, 2003.11.
 안병국, <盧照隣의 疾病 探索>, 《中國語文學誌》 제10집, 2001.12.
 _____, <初唐四傑交流考>, 《中語中文學》, 第9輯, 2006.11.

< 中文提要 >

初唐四傑之一的盧照隣, 以非常痛苦的人生經歷而著名. 關於盧照隣的生平, 學術界會有很大的爭議. 衆說紛紜, 難有定論. 研究其生平, 不僅需要豐富的資料, 還需要合理的邏輯和細膩的鑒別. 盧照隣的生平問題覆蓋面非常廣泛, 可是在他的作品裏實存有許多有關其生平的線索. 本人經過反復思考, 去偽存真, 鉤輯出了盧照隣比較合理的生平, 特別是對他的下獄時間和原因提出了自己的看法, 略呈拙見, 希望能對盧照隣的生平研究有所貢獻, 同時也期待學界方家嚴厲的批評和指正.

關鍵詞: 鐵勒九部、李元裕、新都尉、登封禮日、具茨山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 간
2008. 7. 18	2008. 8. 7	2008. 8. 21	2008. 9. 20	2008. 9. 30